

중국발 저염분수 유입 우려... 제주 '초비상'

대홍수에 중국 양쯔강 유출 수량 전년 대비 44% ↑도, 대책회의 열고 유관기관 연계 전담대응체계 구축

제주지역 연안에 중국발 저염분수 유입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최근 중국 양쯔강 유역 대홍수로 인한 저염분수의 제주 인근 해양 유입으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자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중순 이후 시작된 중국 남부지역 집중호우로 양쯔강 유출 수량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이는 중국발 저염분수가 제주 인근 해안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2016년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도는 제주지방기상청 자문 등을 통해 중국 현지의 기상 상황을 확인하며 저염분수 유입 및 해양쓰레기 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31일 최승현 행정부지사 주재로 '중국 양쯔강 대홍수 대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기존 모니터링 체계에 더해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연계하는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동중국해 저염분수 이동

상황을 예찰하고 수협 및 어촌계 등에 통보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온과 염분농도에 따라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단계별 행동요령을 재정비해 강화하고, 유사시에는 금어기 해제 또는 수산생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염분수 외에도 해양쓰레기 제주 유입, 양쯔강 하류의 원전 사고 발생 우려 등에 관한 대책도 논의됐다.

도는 해양쓰레기에 대비해 위성을 활용한 광대역 모니터링과 예찰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육상에서는 청정바다지킴이를 활용해 쓰레기의 이동을 관측하고 제주 연안 2마일 이내 접근 시에는 청항선-어

항관리선과 청정바다지킴이를 동원해 신속하게 수거할 계획이다.

특히 양쯔강 하류 원전 침수 등 최악의 상황 시에는 도시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정부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위기경보 수준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중국발 저염분수 유입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양쯔강 하류 대홍수는 해양환경 악화와 어민 피해, 최악의 경우 방사성 물질의 유입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문제"라며 "최근 상황은 2016년과 유사함에 따라 예의주시하고 사전에 충분한 경보·대응체계를 갖춰 미리 대응해야 한다"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성산포항 활어위판장 조감도.

사진=제주도 제공

성산포항 활어위판장 내달 문 연다

활어판매장·회센터 조성도 "어민 소득 증대 기대"

성산포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성산포항 활어위판장이 최근 완공되며 오는 9월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총 사업비 125억원(국비 40·도비 30·자부담 55)을 투입해 지난해 1월 착공한 활어위판장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5917㎡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활어위판장, 활어 판매장, 회센터(식당), 전판대, 전시장, 관람로, 주차장 등이 있다.

성산포항 활어위판장이 완공되면 물고기를 살아있는 상태로 판매하는 등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여객량이 많은 경우, 수협의 수매기능을 활용해 안정적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문객들이 싱싱한 활어를 골라 먹을 수 있는 관광어시장형 활어회센터로 조성됨에 따라 주변 관광지(성산일출봉, 우도 등)와 연계한 어촌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금기자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인 여성농업인이 출산하는 경우 소득단절에 대한 모성 보호와 생계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와 그에 따른 급여를 지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여성은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현재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

인이거나,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의 여성농업인이다.

출산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주식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산일로부터 30일 단위로 50만원씩 총 3회에 걸쳐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시설딸기 휴경기에 미니수박 수경 재배

농업기술원 실증실험 진행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기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가 시설딸기 휴경기간(5~8월)에 수경재배시설을 이용한 미니수박을 재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의 육성 가능성에 대해 실증시험하고 있다.

2일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미니수박은 일반수박의 4분의 1 크기로 껍질이 얇아 꺾어먹을 수 있다. 보관이 쉽고 음식물 쓰레기가 적다는 장점으로 1~2인 가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시설딸기 수확 후 후기작으로 지난 5월15~17일 2능가에 2개 품종의 미니수박을 정식했다.

지난 7월 27일 기준 2개 품종의 열매 특성을 비교 조사한 결과 무게는 각 970g과 900g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무게에 근접했고, 평균 당도는 각 10.1·10.5브릭스를 보였다.

해당 농가는 지난달 10일 첫 수확 후 도내 농협공판장, 로컬매장, 개인 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하하고 있다. 900g 이상 상품인 경우 개당 3500~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8월 하순까지 수박 모종 1주 당 상품과를 3개 이상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3.3㎡ 당 2만~2만5000원가량의 조수익으로 고비용 시설을 활용한 '틈새 소득작목' 가능성을 확인했다. "내년에는 고설베드 수경재배에 적합한 유인방법을 찾고 정식 적기를 확립해 쉽게 재배하고 소득을 현재보다 더 높일



시설딸기 수확 이후 휴경기간(5~8월)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수경재배시설을 이용해 재배한 미니수박이 떠오르고 있다. 사진=제주농업기술원 제공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미니수박 노지재배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세화실증포장에 3개 품종을 정식한 후 비교 실증재배를 추진하고 있다"며 "월동부, 당근, 양파 등 월동채소에 집중돼 있는 동부지역에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다양한 품종을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금기자 haru@ihalla.com

"제주청년들, 마음 속 고민 털어놓으세요"

상담프로그램 '고민 톡' 운영

제주청년센터는 심리 및 진로 등의 고민을 갖고 있는 제주청년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지원하는 '제주청년 고민상담 프로그램 - 고민 톡' 오픈라인 상담을 3일부터 운영한다.

오는 11월까지 운영되는 이번 오

프라인 상담은 매주 월·수요일에 운영된다.

상담은 전문 심리상담가와 청년이 1대1로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MBTI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한 심층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상담 분야는 진로교

민(진로, 취업, 적성 등), 심리교민(자존감, 자기이해 등), 연인교민(이성, 커플, 청년부부 등), 대인관계교민(가족, 친구, 선후배 등), 이별교민(가족의 죽음, 사별 등), 기타 고민(그 외의 고민) 등이다.

참여대상은 만 19세~39세의 제주 청년이다. 센터 홈페이지(www.jejuyouth.com)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상담이 운영되고 모든 상담은 비공개 및 무료로 진행된다.

센터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고민 상담을 통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심리교민, 대인관계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힘들어하고 있는 제주 청년들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청년센터는 이달 말 제주시 원도심인 천년타워에 새롭게 등지를 틀었으며 청년의 커뮤니티 활성화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코로나 의료진·봉사자 해녀박물관 무료 관람

해녀박물관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에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말까지 무료관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에는 코로나19로부터 안

전 제주를 지키는 최일선 방역 종사자들을 위로·격려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대상은 의료진, 방역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 종사자와 가족이다.

신청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를 방문, 사전 예약한 후 관람일 당일 코로나19 대응활동 자료(활동사진 등)를 제시하면 된다. 백금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석회효과
높은 저장성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코코리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달팽이추출물 핵심 물질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필립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알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바실러스
 유기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 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훈스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생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YouTube 석회질소 검색 NAVER DUM 코코리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농업인이자면 이 광고를 보셔야합니다

감귤·만감 하우스 농가 *일조가모자랄때:광합성 작용을 위해 하우스 천정으로 살포 =해피하그린 1병(50말)을 일주일 간격 2회→당 상성과 연관이 있으므로 꼭 살포할것

키위농가 *건물중을 높이기 위해 하이휴믹(천연가리)관주:1000평에 500g을 100말에 희석하여 한달간격 2회

양배추·양파·브로콜리 농가 *육묘 키울때: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해 V패스(500ml) 12.5말로 2~3회 살포 *정식할때:V패스를 조루로 충분히 관주후 파종

마늘농가 *마늘종자소독: 파종 하루전 키토산(2L)25말로 희석하여 침지하거나 조루로 충분히 묻혀 관주후 다음날 파종 = 종자를 막형성시켜 세균이 침범하지 않으며 뿌리가 나오면 미생물 먹이가 되어 발아가 균일하게됨

감자농가 *더닝이병과시들은병예방을위해 토양소독: V패스(2L)+썰파고(8L)를 50말에 희석 500평 관주후 경운

제품소개

- 해피하그린 : 희토류가 들어있어 엽록소 함량 증가로 광합성 능력을 회복
- 하이 휴 믹 : 부식산에서 추출한 고농축 천연가리
- V 패 스 : 희토류와 양자에너지로 합성된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제
- 썰 파 고 : 나노유황과 콜라겐으로 만든 균 예방제

(주)포트라 제주지사 곱탕이감귤유통상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